

수도권서 가장 먼 남해안권에 국토 신성장 거점 필요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4> 남해안 新수도 조성하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쇠락하고 있는 국토의 최남단인 남해안에 새로운 수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로 인해 충청권은 2000년대 들어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호남권을 넘어섰고, 제4세대

수도권·세종권·남중권 연계

국방·해양·관광·환경 부처 이전

신해양시대 새 발전축으로 키워야

방사광가속기 등 각종 정부부처 공모에서도 선정되면서 급속한 성장세에 올랐다.

수도권과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철도, 도로 등 SOC가 속속 들어서면서 수도권과의 거리도 급격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세종시 조성이 충청권의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호남권만 뒤처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한지 16년이 지난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열개를 짜고, 국토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남해안 신수도 조성'을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이 부합한 국토 신성장 거점 조성,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수도권에 대항하는 국토 제2의 성장축 조성, 수도권-세종시-남중권 신수도로 연결되는 국토발전구상(H벨트의 핵) 완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 실장은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정부 대외정책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북아경제권의 중추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신해양시대에 부합한 해양·관광·생태(환경) 중심지를 전남과 경남에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치로 광양만권 내 광양·하동을 제시한 김 실장은 가장 신해양관광환경수도건설추진단

을 설치해 국방 및 해양·관광·환경 등과 관련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COP28 연계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동서 간 화합 및 번영의 새 미래를 열고 남해안권에 광역 연계·협력 신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등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집중과 대응 및 조화로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세종시를 조성한 만큼 남해안권에 새로운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이전 정부부처와 기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상청, 환경부(제2청사), 관련 산업(RE100)클러스터, 국제기구 등이다.

이와 함께 지리산·섬진강 생태자원 중심 레저와

휴양이 복합된 '남중권 에코-파라다이스(Eco-Paradise)'를 조성하고 이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도 연계한다면 시너지는 배가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제안했다. 섬진강 하구 생태계 및 생태습지, 남파랑길 연계 섬진강 600리길 등을 복원하고, 'COP28' 유치·성공 개최와 함께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해양·환경산업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의 육성도 추진해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5청 등 모두 37개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개(27.0%), 충청권 27개(70.3%), 호남권 2개(2.7%) 등이 소재하고 있다. 또 정부 소속기관 373개, 공공기관 362개 등 735개 가운데 수도권에 263개(35.8%), 충청권에 175개(23.8%), 영남권에 147개(20.0%)가 집중돼 있으며, 호남권에는 89개(12.1%)만 자리하고 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변호사 153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53명이 9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광주·전남 변호사 153명, 이재명 지지선언

"불공정·양극화 해결할 책임자"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153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서민을 돕는 정치 신념을 가진 후보다"면서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인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에는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온 국민을 아울러 이끌어야 할 용기, 결

단력, 실효성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국의 공정 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는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국의 공정성장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책임자"라면서 "지역의 문제도 깊이 이해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선언 명단에는 강행욱 5·18 민주화운동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신숙 전주 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출신 김나운 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이번엔 경선불복·지사직 유지 신경전...네거티브 휴전 선언 무색

이재명·이낙연 측 날 선 공방

지지자들 SNS 비방전도 가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진영이 '네거티브 휴전'을 선언한 이튿날인 9일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정당이 안 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경선 불복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그냥 넘어가려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말은 안 하지만 지지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 지사의 대통령 적격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경선 불복과는 거리

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경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후보 사퇴를 주장하던 '후단협'이 생겨난다"며 "정말 민주당 당원이라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설 의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세 불리기와 네거티브 경선에 주력한 이유가 경선 불복 명분 쌓기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를 거듭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이 지사 캠프를 겨냥해 '도청 캠프'라는 표현을 소개한 뒤 "도청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지사직 사퇴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낙연측 정태호 의원도 라디오에서 "잘못하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데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단체장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사퇴하라는 공방은 오히려 원리통전 제주시사나 야당이 원하는 바"라고 반박했다.

지지자들의 상호 비방도 계속됐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이 전 대표 캠프 주요 인사들의 음주운전 전과를 정리한 글이 전파됐다. 반대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가려 한다"며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비난했다.

한편, 이 지사의 강성 지지자들이 '도지사 사퇴론'을 거론한 이상민 당 선관위위원장에게 '문자폭탄'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욕먹이는 일"이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28.4%·윤석열 28.3%·이낙연 16.2%

KSOI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민주당 35.4%·국민의힘 34.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주 새 4%포인트 내리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은 결과 윤 전 총장은 28.3%로 전 주보다 4.0%포인트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부·울·경(10.9%p ↓), 서울(7.6%p ↓), 50대(10.0% ↓)에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내렸고, 여성(4.6%p ↓), 자영업층(6.7%p ↓)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이 지사는 28.4%로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르며 윤 전 총장과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0.2%포인트 오른 16.2%,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0.3%포인트 오른 6.1%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4.2%), 유승민(3.5%), 추미애(3.2%), 안철수(2.5%), 정세균(1.3%), 박용진(0.3%), 기타 후보(2.0%) 순이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들의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묻은 결과, 이 지사(34.3%), 윤 전 총장(33.4%), 이 전 대표(15.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주 대비 0.9%포인트 내린 4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도 0.3%포인트 하락해 51.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3.5%포인트 오른 35.4%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하락한 34.1%로 집계됐다. 이어 열린민주당(7.7%), 국민의당(6.4%), 정의당(3.1%), 기타 정당(2.1%)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